2018. 4. 4.

새물결플러스 홈페이지 공개

철학자가 된 셜록 홈즈

리브 김 I 256쪽 I 14,000원

글_ 이진호

태양은 저토록 분명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 투성이야

심리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심리철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자가 다루는 '심리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단어 자체로는 우리에게 낯선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 사회가 가장 반기는 단어 중 하나인 '심리'와 '철학'이 나란히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정체를 어림잡아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단호하게 밝히는 심리철학의 정체는 우리가 짐작한 것과 사뭇 다르다.

"심리철학이 영미권과 독일어권의 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분과로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기만 하다. 심리철학philosophy of mind이 심리학phsychology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드물 정도다." (p.17)

심리학이 인간 심리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문이라면 심리철학은 그 영어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마음'에 관한 형이상학적(철학적) 고찰이다. 그리고 저자가 책의 서두에 제시하는 심리철학의 주요 질문은 영혼, 자유의지, 인격 등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적인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성격의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심리철학을 알아야 하는가? 저자의 말을 빌리면 심리철학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것이다. 과연 인간을 이해하는데 과학적인 설명만으로 충분할까? 인간은 오직 물질적인 존재 그뿐인가? 우리는 아직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최근의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아직 채 인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 우리에게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심리철학은 이런 상황에서 보다 총체적인 인간관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으며 책 <철학자가 된 셜록 홈스>는 (저자가 밝혔듯) 바로 그 심리철학의 세계로 대중을 초대하기 위한 입문서이다.

셜록 홈즈를 통해 듣는 철학 이야기

심리철학의 세계로 대중을 초대하기 위해 저자는 철학과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는 장치를 하나 사용한다. 일반적인 철학 도서의 서술 방식과는 달리 셜록 홈즈란 대중적인 인물(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의 입을 빌려 심리철학에서 다루는 질문을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간 것이다.

먼저, 저자가 셜록 홈즈를 탐정에서 철학자로 변신시키는 과정이 꽤나 흥미롭다. 본디 탐정은 추론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탐정이었던 홈즈는 보이는 것을 통해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추론하는데 익숙하다.

"가끔 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범죄 사건을 다룰 때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네. 흔히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다네. 그건 바로 범죄사건을 해결한 사람도 정작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지. ... 나는 살인마가 살인을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위험한 범죄의 계획을 모의하는 바로 그 장소에도 함께 있지 않았지." (p.164)

따라서 홈즈가 근본적으로 그 인물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관심이 '사건'에서 '인간(심리)'으로 옮겨간 것뿐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홈즈가 철학자가 된 것은 제법 어울리는 설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셜록 홈즈의 연속성은 우리가 철학자 홈즈를 만나는 것과 이전의 소설 속 탐정 홈즈를 만나는 것을 동일한 경험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준다(저자가 책의 전반적인 문장을 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의 번역투와 비슷하도록 맞춘 것은 이러한 노력을 위함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책을 철학 도서이기 보다 셜록 홈즈의 새로운 시리즈이자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처럼 쉽게 읽어나갈 수 있다.

일원론과 이원론의 대립,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책에서 진행되는 논의는 크게 일원론과 이원론 사이의 대립이자 심리철학계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갈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일원론과 이원론의 대립은 비단 이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철학 논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다. 그러나 이 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진행되는 논의 속에서 '주장'보다는 '반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주인공인 홈즈의 태도이다. 홈즈는 실제 토의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그저 왓슨의 입을 통해 학계의 논의를 전해 듣고 각 주장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다시 왓슨에게 설명한다. 왓슨이 일원론의 주장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비판하고 이원론의 주장을 가지고 오면 다시 그것을 비판하는 식이다.

이런 홈즈의 태도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비트겐슈타인'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책의 설정에 따르면 이 인물은 우리 지구 역사 속의 비트겐슈타인과는 별개의 인물이다. 그러나 저자가 의도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관점이 저자의(혹은 홈즈의) 그것과 관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구의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문장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처럼 홈즈가 논증할 때의 태도는 조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미 나온 주장에 대해선 합리적인 비판을 날카롭게 가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아무런 논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책은 오히려 이런 이유로 심리철학을 처음 접하는 대중이 편견 없이 심리철학에 입문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된다. 특정 학자나 사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논증에 집중함으로써 심리철학에서 다루는 질문에 보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책이 마지막을 향해갈수록 앞서 제시된 질문이 해결될 기미는커녕 오히려 깊은 논리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 홈즈와 왓슨은 여전히 인간과 영혼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들 저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만 여전히 남아 있었지. 그들을 내가 잡아야 할 범인이라고 비유한다면, 그들을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한다네." (p.227)

에필로그에서 홈즈와 왓슨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과학의 발달, 로봇, 인공지능과 같이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게 될 세상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홈즈는 모든 논의에 앞서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간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열린 물음으로 남겨둔다. 아마도 이 지점이 현대 심리철학이 인간에 대한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 중 지금 도착해있는 지점일 것이다(그리고 우린 아주 얕은 수준에서 그들의 지적 성취에 동참해본 것이다.

"태양은 저토록 분명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 투성이야." (p.236)

저자가 이 책을 다양한 등장인물을 통한 이야기로 풀어냈기 때문에 독자는 훨씬 풍부한 심리철학 여행을 경험해볼 수 있다. 각 논의마다 서로 다른 인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을 흡수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심리철학의 관점을 찾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홈즈의 관점만이 온전히 저자의 관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홈즈와 왓슨의 대화를 통해 철학적 고민 사이를 유랑하는 저자의 모습이 엿보였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사실은 유랑하는 나의 모습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이와 같은 철학적 유랑을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제 막 심리철학으로 초대된 입문자일 뿐이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진호_ 대학원에서 교육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다.